

찬양 :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(412장)

1. 성령의 열매중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. 예수님의 사랑은 친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입니다.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,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. 또한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여야 합니다. (요일 3:18)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.
2.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.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. 이 세상이 주는 기쁨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러나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며 불완전합니다.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야말로 참된 기쁨입니다. 예수 믿은 후 얻은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? 함께 나누어 봅시다.
3.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.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.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곳마다 peacemaker 로 살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.
4.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 주십니다.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있을까요,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요.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 주셨는지 생각해 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.